

SK건설, 2006년 매출 3조원 목표

건설공사 수주액 4조7000억원으로 확대 ... 중동·동남아 중점개척

SK건설이 2006년 수주 4조7000억원, 매출 3조4000억원 목표를 달성기로 했다.

SK건설 손관호 사장은 1월16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2006년에는 어느 특정사업 분야에 주력하기보다는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업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수주 4조5300억원, 매출 2조6000억원, 경상이익 1400억원을 거둔데 이어 2006년에는 수주 4조7100억원, 매출 3조4000억원, 경상이익 18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영업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토목부문에서는 턴키부문 1위를 목표로 수주 1조700억원, 매출 5300억원을 달성하고, 플랜트 부문은 중동·중국·동남아 등을 기반으로 수주 1조9000억원, 매출 1조4500억원의 실적을 올릴 방침이다.

건축부문은 <SK뷰>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9869가구를 분양해 수주 1조7000억원, 매출 1조4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해외부문에서는 기존의 쿠웨이트·타이·멕시코 외에 2006년 중국·베트남·인디아·카자흐스탄 등지로 수주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는 현지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손관호 사장은 “기술수준 향상과 마케팅 강화, 고객만족 경영을 바탕으로 하되 문화·가치·시스템·업무처리 분야에 있어 일류가 돼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 3년간 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건설은 이를 위해 2006년 <변화 추진실>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손관호 사장은 “2005년에는 토목·플랜트·건축 등 모든 분야가 수주·매출·유동성 측면에서 뛰어난 성장을 했다”며 “2006년에도 2005년 이상의 실적을 올려 반짝 성장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손관호 사장은 “2006년은 SK건설이 업계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최대 전환점”이라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 기업공개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용정보는 1월16일 SK건설의 기업어음 단기등급을 <A3>에서 <A3+>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신용정보는 “안정적인 공사 잔량, 연이은 해외 대규모 플랜트 공사수주 성공, 재무구조 개선 추세, 낮은 차입금 부담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18>